

시선

사설

무(無)대표 학생사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는 ‘권한대행’의 득세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고, 바로 그 탄핵심판 절차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부처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자리를 직무대행자가 보완하고 있다. 리더십이 공백을 맞았음에도 정당한 후임자를 세울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사실상 국정공백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현상유지의 책임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인 통설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의 국가 활동은 큰 틀에서 멈춰 서 있는 셈이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의 동반 낙선’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마주한 우리학교 학생사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은 양 캠퍼스 총학이 없이 맞는 첫해다. 양 캠퍼스 학생사회는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비대위) 체제로 꾸려지곤 있지만,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권한의 행사에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나라와 정당회담을 시도하는 국가가 아무 데도 없는 것처럼, 대표성이 현저히 결여된 비대위는 학생대표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선출된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책임감을 ‘권한대행’이 갖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각종 협상에서 학생 사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 A는 개인사유로 불참했고, 대리로 참석한 이는 발언권 없이 돌아왔다. 졸업역량강화TF에서는 학생대표가 본인이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졸업역량강화 관련 협상을 미루는 일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성실히 흘러 개강을 맞았고, 새내기가 입학했다. 하지만 ‘학생 리더십 공백’의 상황에서 학사제도 개편, 교육의 질적 가치 향상 등을 주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구심점을 잃고 산산히 흩어졌을 뿐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름대로 ‘정상(常)적이지 않은(非)’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서둘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에 전념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전념해야 할 것은 당연히 재보궐 선거다.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자 등록기간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한다. 일상 상황에서도 수년간 단선으로 진행되고 절반 남짓의 투표율을 보이며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선거인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을 비대위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즐겨 외치는 구호 중 하나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진정으로 주인 된 권리를 누리는 첫 걸음은 그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표 없는 곳에 과제도 없지만, 대표 없는 곳에 권리 또한 없음을 학생 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제 - 학생대표 선출

학생자치에 대한 존중은 ‘절차’에서 나온다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대학에 입학했다. 잠깐 그 이전을 돌아켜보자. 6년, 3년, 3년. 무려 12학년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다. 그 1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반장’을 직접 뽑았다. 대학에 오니 웬 선배 한 명이 우리를 맞는다. 과 학생회장, 학교 대표다. 신입생들을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선배.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2학년이 돼서 보니 웬 다른 사람이 학생회장이 돼 있다. 들여다보니 해택이라고 ‘약간의 장학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학생회장인지라 나서는 사람이 없단다. 전임 학생회장이 맡길 사람을 찾아 ‘몰려줬’단다. 잠깐, 언제부터 반장을 내 허락 없이 뽑게 된 것일까?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학생회장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각 학교마다 다양했다. 종이투표와 ‘카톡’ 투표, 간선제, 물려주기 등. ‘물려주기 식’ 학생회장 선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준비와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자연스럽게 학교 내에서의 유대감은 줄어들었다.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 회생을 감수하면서 학교 학생회에 몸담으려는 학생도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지적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학교 학생회장은 한 학과를 대표한다. 새터, MT

등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학대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와 같은 ‘의결기구’에도 나와 학과를 대표해 참석한다. 집행부와 함께 학과를 위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동도 한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자. 귀찮은 일을 해준다는 이유로 ‘우리가 뽑은 대표’라는 정당성을 버려도 괜찮은 것일지. ‘지원자가 없다는 토로’에 앞서 공식적인 입후보나 투표절차는 존재했는지.

‘일개’ 학과 대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 대표의 연명으로 한 학과의 이미지가 결정돼버린 경우도 있었다. 우리 신문에서 보도했던 ‘러시아어학과 학생회장’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 하나는, 그저 학과의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학과 전체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도 컸다. ‘정당성’이 필요한 이유다. 대표성을 띄지 않은 대표가 실추한 학과의 명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많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장들과 접촉했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고와 회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장학금에 대해 토로했다. 대부분 학생회장을 맡는 3, 4학년은 취업준비만으로도 벅차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공채가 이뤄지지 않아 매번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을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학생회의 대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학생들 사이의 ‘학생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마땅하겠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이 돼야 할 것은 ‘공정한 절차’를 만들 학생회 자체의 노력이다.

편집장으로
첫 번째 신문을 펴내며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개강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다. 방학이었지만 매일같이 학교를 나오고 서울캠과 국제캠을 오가면서 어느 때 보다도 바쁜 방학을 보냈다.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회의를 했다. 학과공부가 아니면 편집실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어느덧 한 조직의 책임자인 편집장이 되어 버렸고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부담감에 살고 있다.

매일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과 글쓰기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대하는 일정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 신문사들을 만나는 서울권대학언론인협의회(서언회) 회의일 것이다. 이름 그대로 서울권에 있는 26개 대학 신문사들의 집합인 서언회는 본래 서로 만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각 학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지만,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만나는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각 신문사의 최고 책임자들답게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고 하나같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이 있지만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신문에 대한 애정이었다.

사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 뉴스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지 않는다. 요즘은 TV보다도 PC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훨씬 더 자주 뉴스를 접하고 있다. 우리 신문사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모바일플러스’를 기조로 디지털매체로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신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 중 전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 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느껴지는 회색의 종이와 잉크의 냄새는 오묘하게 향수를 자극하고, 가벼운 무게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기자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면을 통해 느껴진다.

하지만 더 이상 독자들에게 이러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결할 수만은 없다. 서언회를 통해서 느꼈던 또 다른 공감대는 각 신문사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노력들이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통해 기사와 신문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봐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3월 6일에 발행될 신문을 위해 필자는 4일 금요일 새벽 밤새 조판작업을 진행하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모두가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갖고 있는 마음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잘 읽히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017년 1학기 개강호는 기자가 진행하는 첫 번째 신문이다 보니 갖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신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땀의 결과물이다. 2017년에도 우리 대학주보를 기대해 달라. 이 건 구결이 아닌 적극적인 매력어필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장기자랑과 술게임 여전한 새터
이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길

미디어 여론동향 2017. 2. 22~3. 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가 지난 13일 학생회관 2층 바로처리실 위치로 이전했다.(국제캠 학생회관 1층에 미래창조소쿨 공간 들어설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7.2.22) 기존 공간은 미래창조소쿨 관련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취진처 측은 “해당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4월을 목표로, 늦어도 연말 안으로 방향성을 잡아 알리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새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들쭉였다. ‘얼마 전 새터를 다녀온 새내기입니다’(#경희소_20246, 2017.2.23)의 글쓴이는 ‘원하지도 않는 장기자랑과 술게임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성희롱 때문에 힘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쓴이는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장기자랑 강제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1위를 했는데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처음 보는 남자 무릎 위에서 술을 마시는 게 그냥 장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상했다’고 썼다. 218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함의되지 않은 술게임 러브샷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총어나 해당 학생회에 문제를 제기해 보라’,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희인으로서 부끄럽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매 학기 개강마다 볼 수 있는 종강을 바라는 글 역시 인기 있었다. ‘내일 개강인데 벌써 종강하고 싶다’(#경희소_20338, 2017.3.2)는 글은 417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벌써 힘들다’, ‘등교하기 전에 하교하고 싶다’, ‘개강의 행복함을 깨닫기 위해 입대합시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서울캠 대운동장 행복기숙사가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학생 926명 수용할 ‘행복기숙사’ 4월 완공/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2.15) 지난 2012년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된 후 오는 4월 완공될 대운동장 행복기숙사는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2인실 458실, 장애인용 10실이 배치돼 92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객실 외에도 대운동장에 면한 야외 공간, 북카페, 체력단련실, 식당, 매점 등이 배치된다. 기숙사비는 2인실 월 19만 9천원으로 책정됐다. 장기 저리의 공공기금을 활용했기에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용인 월 30~40만 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다. 대운동장 행복기숙사 완공에 따라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10.5%(1,690명)에서 16.2%(2,616명)으로 상승하게 된다.

2017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지난달 20일 열렸다.(‘명명사적 격변기, 대학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3.2) 21세기 대학의 학사제도가 담어나야 할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학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소망하는 대학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우리 대학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올해 연구와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 연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융합형 교육을 본격화한다. 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미래창조소쿨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희-삼성 산학협력관 착공을 시작으로 산학연을 선도할 계획이다.